

# “Feel, 끝내주네”



29일 오후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개막 2차전 경기, 9회말 무사 1루에서 역전 투런포를 때린 KIA 브렛 필이 홈에서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3회 3점포·9회 끝내기 투런...짜릿한 역전

### KIA, LG에 개막전 이어 기분좋은 2연승

뒷심을 더한 '호랑이 군단'이 개막 2연승을 달성했다. 2003년 이후 첫 개막 2연승이다.

KIA 타이거즈가 29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시즌 2차전에서 9회말 무사 1루에서 타진 필의 역전 끝내기 홈런으로 7-6 승리를 거뒀다. 전날 마무리 윤석민으로 3-1 승을 완성했던 KIA는 2연승으로 기분 좋게 2015시즌을 열었다.

필로 시작해서 필로 끝난 경기였다. 0-2로 뒤지던 3회 필의 홈런쇼가 시작됐다. 고졸 2년차인 LG 선발 임지섭이 연속 볼넷으로 흔들리며 1사 1·2루, 전날 좌측 펜스를 맞는 타구를 날렸던 필이 이번에는 가뿐하게 펜스를 넘기면서 3-2로 역전극을 연출했다.

KIA는 몸에 맞는 볼이 연달아 나온 4회 김원섭의 적시타로 4-2로 점수를 벌였지만 6회 보이

지 않는 실책에 마운드가 무너졌다. 선두타자 정 의윤의 좌전 안타 때 타자원이 한번에 공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2루타가 됐다. 김용의의 타구가 1루수 필의 글러브로 빨려들어가면서 아웃 카운트 하나가 채워졌지만 바뀐 투수 임준섭이 대타 이진영과 손주인에게 연속 안타를 허용했다. 오지환의 타구도 나지환을 넘어 2루타가 되는 등 불안한 외야 수비 속 3개의 2루타 포함 6피안타로 대거 4실점을 하며 4-6으로 승부가 뒤집혔다.

7회 2사에서 최희섭이 정찬현을 상대로 시즌 첫 홈런포를 날리며 추격에 나섰다. 추가 득점 없이 마지막 9회가 찾아왔다.

최고참 최영필이 최준준에게 중전안타에 이어 도루까지 허용했지만, 이병규(9)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운 뒤 포수파우플라이와 유격수 플라이로 실점없이 이닝을 마무리했다.

LG는 승리를 지키기 위해 마무리 봉준근을 출격시켰다. 그러나 대타로 나온 김주찬이 볼넷을 끌라내며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필의 5번째 타석이 돌아왔다.

필은 망설임 없이 초구에 방망이를 휘둘렀고 공은 우측 담장을 넘어가면서 역전 끝내기 홈런이 됐다. 시즌 2회 끝내기이자 통산 245호 끝내기로 팀의 연승이 완성됐다. 또 필의 한국 무대 첫 끝내기과 개인 최고 타점(5)까지 기록했다.

공·수에서 좋은 활약을 선보인 필은 “원손 선발에 맞춰서 오늘 경기를 준비했다. 두 번째 홈런 때는 봉준근이 포크를 잘 던지니까 거기에 맞춰 스윙을 하자고 생각했다. 직구가 높게 와서 휘둘렀는데 맞는 순간 홈런인 줄 알았다. 기분이 좋다”며 “오키나와에서 수비 훈련도 많이 했다. 팀이 이기는 것이 중요하고, 투수들이 승리투수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했다”고 밝혔다.

진정 LG를 상대로 2연승을 거두며 고향팀에서의 향해를 시작한 김기태 감독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에게 고맙다. 이것이 KIA 타이거즈의 힘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덕아웃 특·특·특

### 개막전 승리후 김기태 “어제 같으면 할 일이 없지”

▲공을 찢어버리자는 생각이었죠 = 프로데뷔 8년 만에 개막전 선발로 출전한 2루수 최용규, 7회 3루타를 때린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병호의 홈런에 이어 김원섭의 안타로 만들어진 무사 1루, 번트 사인이 나오지 않아 공을 찢어버리자는 상황으로 타격을 했다면서, 최용규의 타구는 우중간을 가르면서 팀의 시즌 첫 3루타가 됐다. 8회 최희섭의 대주자로 들어간 최병연에게도 남다른 개막전이였다. 2010년 신고선수로 입단해 처음 1군에 등록된 최병연은 가슴 떨리는 개막전을 치렀다. 최병연은 “투수 밖에 보이지 않더라”며 처음 1군 무대에 올랐던 순간을 말했다.

▲수훈선수하고 바꾸자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죠 = 28일 개막전에서 ‘KKK’ 쇼를 선보이며 승리투수가 된 임준섭, 개막전 수훈선수가 된 선발 양현

종이 승리와 수훈선수상을 바꾸자고 했다면서, 이날 양현종에 이어 0-0으로 맞선 7회 마운드에 오른 임준섭은 깔끔하게 세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1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다. 임준섭은 이어진 7회말 공격에서 나온 이병호의 결승 홈런 등에 힘입어 경기 3-1로 끝나면서 시즌 첫 승의 주인공이 됐다. 개막전 선발로 나선 양현종은 6이닝 5피안타 4볼넷 2탈삼진 무실점으로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어제만 같으면 할 일이 없지 = 29일 경기에 앞서 개막전 경기에 대해 언급한 김기태 감독, 야수들이 3점을 만들고 투수들이 1실점만 기록하는 등 깔끔한 경기를 해줬다면서, 김기태 감독은 “어제와 같은 상황이면 큰 것으로 1점, 작전으로 1점, 도루 등으로 1점 만들면 되니까 내가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다”고 웃었다. /김여울기자 wool@

## 숫자로 본 KIA 개막전

야구는 숫자와 기록의 스포츠다. 막이 오른 프로야구 34번째 시즌, V11에 도전하는 KIA 타이거즈 개막전을 숫자와 기록으로 요약했다.

**양현종 1호 볼넷 1**

기록 행진이 시작됐다. 양현종은 개막전 선발로 출격하면서 올 시즌 팀에서 가장 먼저 마운드에 오른 투수가 됐다. 양현종은 1회 선두타자 오지환과의 승부에서 볼넷을 허용하면서 프로야구 시즌 1호 사구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KIA 11번째 우승 도전 11**

2009년 '가을 잔치'의 주인공이었던 KIA는 올

시즌 11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29일 시구자로 '11'이라는 이름을 가진 광주경찰청 소속 김일레븐(여) 경장이 나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아버지께서 11달 만에 태어났다고 해서 지어준 특별한 이름이라는 설명이다.

**이병호 125m 홈런 125**

이병호의 방망이 끝에서 팀의 첫 홈런과 첫 승이 완성됐다. 이병호는 28일 0-0으로 맞선 7회말 선두타자로 나와 소사의 직구를 받아 비거리 125m의 중월 솔로포를 기록했다. 경기가 3-1승으로 끝나면서 이 홈런은 결승타가 됐다. 이병호는 앞선 2회 1사에서 때린 병살타로 프로야구 시즌 1호 병살타의 주인공도 됐다.

**윤석민 557일만에 세이브 557**

돌아온 윤석민이 소병수로 올 시즌을 보낸다. 마무리로 최종 결정된 윤석민은 개막전부터 세이브를 수확했다. 3-0으로 앞선 8회 2사에서 등판한 윤석민은 연속 안타로 1실점을 했지만 9회를 삼자 범퇴로 막으며 세이브 투수가 됐다. 2013년 9월 17일 대전 한화전 이후 557일만의 세이브였다.

**최희섭 661일만에 홈런 589**

돌아온 최희섭의 복귀전은 성공적이었다. 2타수 1안타, 첫 타석에서 우전안타를 때리며 2013년 8월 16일 두산과의 홈경기 이후 589일 만에 안타를 신고했다. 두 번째 타석에서는 투스트라이크에서

8구까지 가는 승부 끝에 볼넷을 끌라내기도 했다. 최희섭은 29일에는 정찬현을 상대로 솔로포를 때리면서 611일 만에 숫자를 보기도 했다.

**정성훈 1800안타 1800**

광주일고 출신의 LG 정성훈이 고향에서 내야수 첫 1800안타 고지를 밟았다. 정성훈은 29일 5회 나온 내야안타로 1800 안타를 채웠다. 프로야구 통산 8번째 기록이자 내야수 첫 1800안타다.

**팀 통산 4040 도루 4040**

개막전 1번 타자는 역시 김주찬이었다. 김주찬은 첫 타석에서 팀의 시즌 1호 안타를 만들었다.

곧바로 2루 베이스를 홈치면서 팀의 시즌 1호이자, 팀 통산 4040번째 도루도 찍었다. 사상 첫 10년 연속 두 자릿수에 도전하는 김주찬의 기록에도 시동이 걸렸다. 한편 김주찬은 29일 장타진 근육통으로 스타팅 라인업에서 제외됐다.

**챔스필드 만원 22000**

2015시즌의 막이 오른 28일 오후 4시 1분 챔피언스필드 입장권 2만 2000장이 모두 팔려나가면서 시즌 첫 매진 사례를 이뤘다.

29일에도 1만 3835명이 경기장을 찾는 등 시즌 KIA가 내세운 72만 관중동원 목표를 향한 순항이 시작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